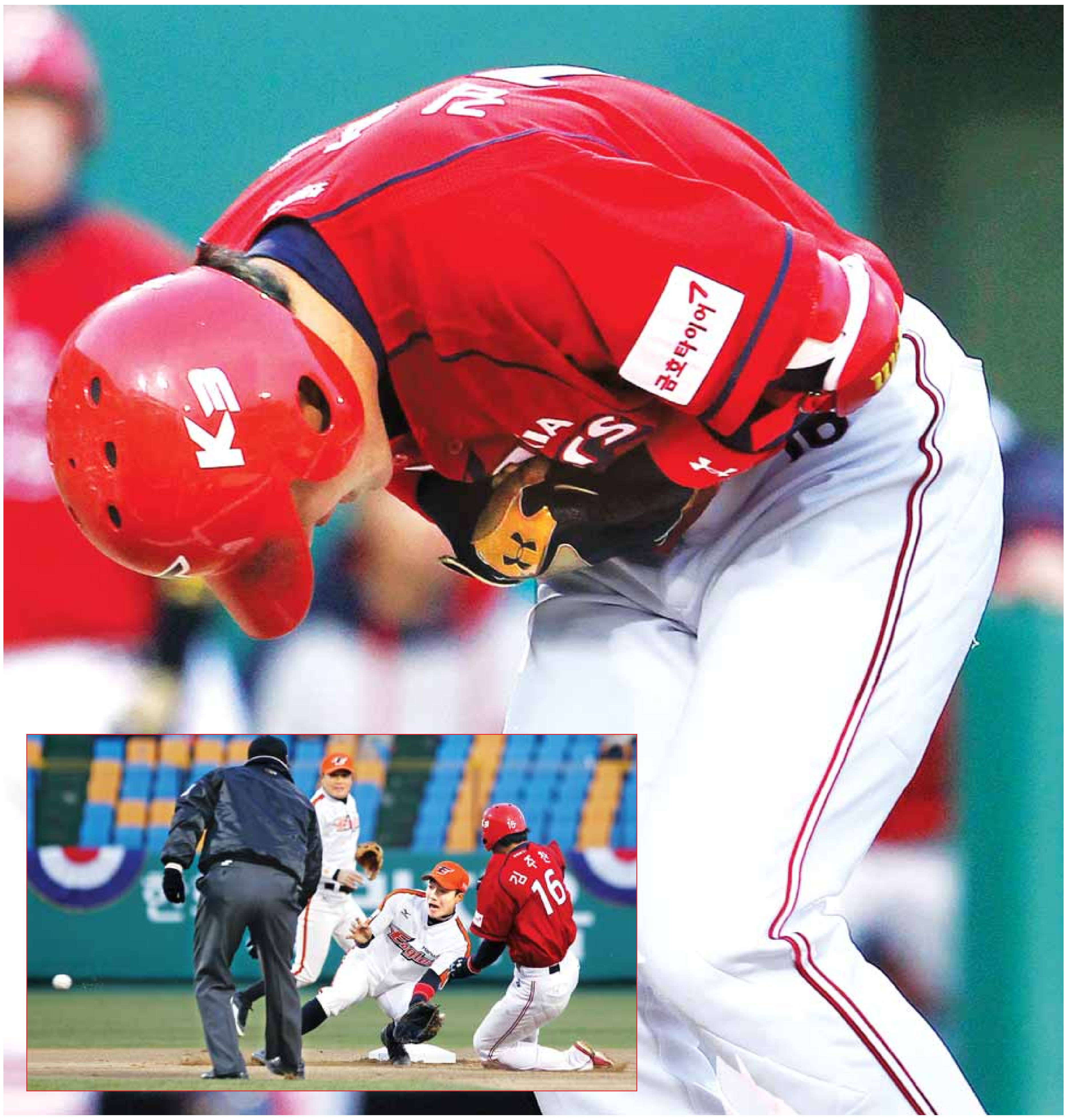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KIA 김주찬이 지난 3일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경기. 1회초 1사에서 왼쪽 손목에 공을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김주찬은 통증에도 불구하고 1루에 걸어나가 2루베이스를 훔치는 투혼을 발휘했다. 정밀검진 결과 손목뼈가 부러진 것으로 나타나 6~8주동안의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 김주찬 '부상 투혼' 호랑이 승부근성 깨우나

## 손목 골절에 도루… "수비 하겠다" 고집

## 그라운드 떠나는 순간에도 '근성' 남겨

호랑이 공격본능 깨운 김주찬, 승부근성도 깨울까?

KIA 김주찬이 부상으로 진한 아쉬움을 남기고 오랜 휴식에 들어갔다. 지난 3일 한화와의 원정경기 1회 첫 타석에서 유창식의 공에 맞은 김주찬은 정밀 검진결과 왼손목 척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5일 골절부위에 대한 핀 고정수술을 받게 되는 김주찬은 6~8주동안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거쳐야 그라운드에 돌아올 수 있다.

선동열 감독은 우승을 위해 중요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부상'이라며 부상방지를 강조했지만 개막 4경기 만에 부상이라는 암초를 만나고 말았다.

선 감독은 "불의의 부상이니 어떻게 하겠냐. 핀으로 고정을 하는 게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그래도 6월 이후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신종길이 좋으니까 역할을 맡길 생각이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는 부상이었다고는 하지만 기동력과 해결사 본능을 과시하며 가장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던 김주찬이었기에 선 감독의 아쉬움은 크다.

그러나 갑작스런 부상으로 떠난 자리에 또 다른 '김주찬 효과'가 남았다.

올 시즌 FA 대어로 롯데에서 KIA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김주찬은 타선 특히 외야의 경쟁에 불을 붙이며 '호랑이 구단'의 공격 본능을 깨웠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KIA 타선의 집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또 김주찬은 빠른 발과 정교한 타격으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하며 KIA 공격에 신바람을 불어넣으면서 '김주찬 효과'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다.

잠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지만 떠나는 순간에는 '근성'을 남겼다.

소문난 악바리지만 김주찬은 3일 공에 맞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김주찬의 교체를 생각하고 있던 순간 김주찬은 1루 베이스에 서서 다시 장갑을 꼈다. 그리고 2루로 달려가 도루를 추가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김주찬은 이어진 이범호의 안타때 홈으로 질주하며 팀의 선취점을 기록했다. 덕아웃에 들어와서는 수비에 나서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 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가 골절이었다. 뼈가 부러진 상황에서도 김주찬은 몸을 사리지 않고 질주 했다.

김주찬의 승부근성은 롯데 시절부터 명성이 자자했다. 도루를 하다 상대 수비수의 스파이크에 찍혀 손가락이 탈골되기도 하고 수비수 무릎에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을 때도 끝까지 손은 베이스를 지켰다. 뼈가 부러지고 펜스에 부딪혀 팔꿈치를 다쳐도 김주찬은 다시 또 베이스로 달려들고 펜스로 뛰어들었다.

김주찬은 이런 사연많은 부상에 대해 "많이 뛰고 슬라이딩을 하니까 부상이 많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해야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린다. 아파도 참고 할 수 있는 정도면 경기에 나가려고 한다. 지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김주찬이 이번에는 경기장으로 바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부러진 손목으로 그라운드를 뛰던 모습은 호랑이 군단의 승부근성을 깨웠다.

/대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말말말

## SUN "승부세계 아니면 김응용 감독 혈압 팍팍 내려드릴 건데"

▲28타석 무안타도 해봤는데요. 뭘=3일 개막 4경기, 15번째 타석만에 안타를 때린 안치홍, 무안타에 대한 부담이 없었냐는 질문에.

▲여기 사복입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나지완이 사복차림으로 라커룸으로 들어오는 김진우를 보고. 5일 롯데전 선발인 김진우는 4일 한화와의 경기에 앞서 선수단과 함께 훈련을 한 뒤 먼저 부산으로 이동했다.

▲지나가네=취재진, 4경기에 안타가 없다고 선동열 감독이 김원섭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주인공이 지나가자.

▲어휴. 힘이 빠져서요=3일 프로 첫 선발 등판에 나섰던 임준섭, 7회까지 던질 예정이었는데 힘이 빠져 중도에 교체됐다며.

▲바꿔야겠더라고=선동열 감독, 3일 임준섭에게 7회까지 맡기려고 했었다며.

▲승부의 세계만 아니면 혈압을 팍팍 내려드릴 건데=선동열 감독이 스승 김응용 감독이 빨리 연패를 벗어나서야 하는 데 걱정이라며.

▲수고하세요=외국인 투수 앤서니, 덕아웃에 있던 취재진들을 향해 한국말로.

▲3일에 하루만, 이긴 날 다음날엔 나오는 걸로=한화 김응용 감독, 취재진이 기다리는 덕아웃으로 나오면서. 나이가 있어서 매일 덕아웃에 나와서 얘기하기 힘들다며.

▲선수들이 자주 웃게 해주겠죠=한화 김응용 감독으로부터 '웃고 있어라'는 얘기를 들은 김성한 수석코치. 한화는 3일까지 실수 연발의 게임을 하면서 개막 후 내리 4연패를 당했다. /대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준표·임준섭 복덩이네

박준표

임준섭

## 첫 프로무대서 나란히 첫 승

## KIA 마운드에 새바람

'복덩이' KIA 새내기 투수들.

2013 KIA 마운드에는 두 명의 신예 호랑이가 있다. 동강대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에 뛰어든 사이드암 박준표(21)와 경성대 졸업후 1년의 재활을 거친 좌완 임준섭(24).

심장 떨리는 첫 프로무대에서 두 선수는 승리투수로 이름을 올리며 KIA의 '복덩이'가 됐다.

박준표는 올 시즌 KIA의 첫 승 주인공이기도 하다. 넥센과의 개막전에서 계투진의 난조로 6-9 역전을 허용한 7회 2사. 프로 데뷔전에서 나선 박준표는 공 5개로 허도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5개의 공으로 첫 경기를 마무리한 박준표는 팀이 이어진 7회말 10-9 역전에 허용하면서 행운의 승리투수가 됐다.

3월 31일 두 번째 등판에서는 8개의 공으로 넥센 박헌도와 이택근을 삼진으로 잡아냈다. 세 번째 등판이었던 3일 한화전에서는 15개의 공으로 5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내는 등 데뷔후 3경기에서 2.2이닝 동안 피안타없이 3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중고 신인 임준섭의 승리도 극적이었다. 임준섭은 선동열 감독이 선발진의 붕괴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임시 선발'.

에이스 윤석민이 어깨통증으로 시즌 출발이 더뎌지면서 임준섭은 프로 첫 등판이었던 지난 3일 한화전에서 선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두둑한 배짱으로 소문난 임준섭이지만 초반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대수와의 첫 승부에서 볼 3개를 연달아 던진 임준섭은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끝에 투수 앞 땅볼로 원아웃을 잡았다. 2번 오선진에게 좌전안타를 맞은 뒤에는 김태완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1사 1·2루의 위기게 몰리기도 했다. 위기에서 김태균의 타구를 잡은 3루수 이범호가 재치있게 베이스를 찍고 1루 송구를 끝내면서 임준섭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불안했던 1회를 넘긴 뒤 임준섭은 서서히 제 실력을 발휘했다. 직구 구속은 141㎞에 그쳤지만 변화무쌍한 공을 앞세워 한화 타선을 잠재웠다. 프로데뷔무대에서 임준섭이 기록한 성적은 6이닝 2피안타 2볼넷 무실점. 경기가 KIA의 12-1 승리로 끝나면서 임준섭은 지난 2002년 4월 9일 '괴물' 김진우에 이어 11년 만에 첫 등판에서 선발승을 거둔 호랑이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다저스 류현진, 8일 피츠버그전 선발 첫승 도전

'괴물' 투수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첫 승에 재도전한다.

류현진은 8일 오전 5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피츠버그전에 선발등판할 예정이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첫 선발등판 경기에서 당한 패배를 설욕할 기회다. 류현진은 당시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상대로 6⅓이닝동안 안타 10개를 맞고 3실점(1자책)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류현진에 맞서는 피츠버그 선발은 동갑내기 좌완 제프 로크다. 2011년 빅리그에 데뷔한 로크는 지난해 8경기에 등판해 1승3패 평균자책점 5.50을 기록했다. 올해 시범경기에서는 7경기에 나서 3승1패(평균자책점 2.63)를 남겼다.

지난 맞대결 상대인 특급 투수 매디슨 범가너(16승11패)와 비교하면 한수 아래의 투수다. 강팀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적응력을 키운 류현진은 피츠버그를 상대로 훨씬 수월하게 투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 타선의 화끈한 득점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추신수 끝내기 득점 … 안타 없어도 강한 존재감

## 신시내티, 에인절스에 5-4 승리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미국 프로야구 2013 정규시즌 두번째 경기에서 끝내기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치러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3타수 무안타, 사사구 2개, 1득점을 기록했다. 개막전에서 5타수 2안타 1득점으로 좋은 출발을 한 추신수의 타율은 0.400에서 0.250으로 떨어졌다.

이날 5차례 이닝 첫 타자로만 나선 추신수는 세번째 타석까지는 상대 좌완 C.J.윌슨의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에 맥을 못추며 범타와 삼진으로 물러났다. 4번째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추신수는 마지막 타석에서는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뛰어난 베이스 러닝을 자랑하며 끝내기 득점에 성공, 제 몫을 다했다.

추신수는 4-4로 맞선 9회말 마지막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다.

크리스 헤이시의 희생 번트 때 2루로 슬라이딩해 들어간 추신수는 다음 타자 보토가 1루수~2루수 사이로 빠지는 안타를 때려낸 사이 홈으로 내달려 경기를 끝냈다.

/연합뉴스